

 들어가며

- 사소한 일을 행하고 유익을 얻은 일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었으며 그때 기분은 어땠습니까?

 찬 송

- 찬송: 212장(겸손히 주를 섬길 때) / 나의 피난처 예수

 말 씀

1. 이새가 다윗에게 맡긴 일은 무엇입니까? (17,18절)

17.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볍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열 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18.이 치즈 열 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2.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까? (19절)

19.그 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3. 이스라엘에 전쟁이 벌어졌을 당시,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다윗을 바라보는 형들의 인식은 어땠습니까? (15절, 28절)

4. 이새의 아들 셋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고, 형들의 도시락을 챙기는 허드렛일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마음은 어땠을까요?

5. 아버지의 작은 심부름이었지만 그 일에 순종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데 한 걸음 내딛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작다 여겨 대충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았습니까? 일상에서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내가 감당해야 할 작은 일은 무엇이 있으며, 또 어떤 결단을 해보겠습니까? (눅 16:10-12)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은사와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충성을 다해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